

“경남은 노동자 살리는 조선업 희생안 요구한다”

중형조선소 살리기 경남도민대회... “문재인 정권, 금융논리로 중형조선소 밀려 죽이면 안 된다”

경남도민 4천여 명이 경남의 중형조선소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을 살리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추운 겨울밤 촛불을 들고 모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 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월 7일 저녁 창원공장에서 ‘노동 생존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중형조선소 살리기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경남 노동지들과 도민들은 경남의 민간과 관청 노동자 모두가 하나 돼 고통을 겪고 있는 중형조선소와 조선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조선 산업 실업 노동자들에게 추가 실업급여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유지 대책 마련을 위한 경남 지역 노사정 회의를 가동하자”라고 경상남도에 제언했다.

한경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도의 현



안인 위기의 조선산업 되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중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고용불인은 노동자 기정의 위기이고, 자녀들도 불안해져 결국 교육 문제로 이어진다”라며 “지자체와 민간에서 중형조선소 살리기 협업체를 구성하면 도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다. 자녀 학자금 급사비 문제 해결에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은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인력감축 중단과 PC발급 완화 등 구체 요구안을 전달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큰 조선소를 살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금융논리로 중형조선소를 밀려 죽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중훈 국회의원(민주당)은 “정부가 조선산업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낼지 우선 노동지들과 대화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당사자 논의로 조선산업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컨설팅 보고서에 따른 해고와 구조조정만 있었을 뿐이다. 노동자와 대화해야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의 딸인 이민서 씨는 “우리 아빠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아빠가 성동조선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달라. 성동조선소를 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조선노동지들은 이날 대회에 참가한 경남도민들을 향해 끝까지 투쟁하고 살아남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눈치 안 보고 화장실 가고, 연차휴가 쓰고 싶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모비스 광주지회 설립... “부당한 처우, 열악한 대우 모두 뜯어 고친다”

현대모비스 광주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탄생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모비스 광주지회(지회장 서정남)가 2월 5일 현대모비스 광주모듈공장 앞에서 지회 결성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는 현대모비스 광주지회 조합원들이 현대모비스 원청을 향해 지회 설립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서정남 현대모비스 광주지회장은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고용과 정년을 보장받겠다. 회사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힘이 없고 나약했던 지난날을 벗어나 금속노조로 뭉쳐 새로운 내일을 선포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모비스 광주모듈공장은 운전석 모듈과 프

론트엔드 모듈을 조립해 기어차 광주공장에 실이 간 납품하는 업체다. 모두 네 개의 사내하청업체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월 4일 현재 70여 명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상황이다. 지회는 조직 확대와 동시에 업체를 상대로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여직원들은 일해봤자 최저임금 반값어치도 못 해”

레이테크, 최저임금 핑계 해고·노조파괴 수순...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인권지킴이 발족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를 없애겠다는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사장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이 힘을 모았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인권지킴이(아래 인권지킴이)’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레이테크 노동자들은 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에 레이테크코리아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최저임금 인상에 사업이 어렵다”라며 지난해 11월 27일 “포장업무를 외주화하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조합원들은 영입부서로 배치한다”라고 발표했다. 포장부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스물한 명은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분회는 “영입부 배치전환은 사실상 해고”라며 1월 23일부터 서울 약수동 포장사업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분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포장 업무를 외주화하고, 생산 업무만 하던 중년 여성노동자들



에게 영업을 하라는 강요는 조합원들을 해고해 노조를 없애려는 부당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임태수 사장이 교섭에서 “포장부 직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최저임금 반값어치도 못 한다”라는 등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분회는 임태수가 포장부를 찾아와 조합원들을 촬영하며 얼굴을 가까이 대고 비아냥거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임태수는 레이테크 여성노동자 휴게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한 전력이 있다.

이필자 분회 대의원은 “입사하고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이라 믿고 열심히 일했다.

레이테크는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핑계로 한겨울에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응원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인권지킴이 발족 선언문 발표에 앞서 “근무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꿈수가 전국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꿈수에 여성노동자가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인권지킴이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여성회 류은숙 부회장은 “이번 레이테크코리아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노동자 정책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며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인권지킴이’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와 분회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을 면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와 조합원들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

한국지엠, 노조파괴 위해 용역 동원하나?

창원공장 신규업체 채용 계약직, 용역강제 둔갑...한국지엠창원비지회, “노조파괴 기획 폭력사태”

한국지엠이 공장에 들여보낸 신규업체 채용 용역들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저지르며 총돌을 유도했다. 용역들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해 공갈까지 저질렀다.

지회는 이번 사태를 2015년에 일어난 갑을오

토크 용역 폭력 사건처럼 회사가 노조파괴를 위해 준비한 폭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월 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신규업체가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대체인력 중 네 명이 폭력사태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과 업체가 지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의 폭력 행위를 유도하고 감시, 사찰한 사건이다”라며 “한국지엠과 업체가 사주한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다.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